

근세 류큐사절·조선사절의 일본·중국 파견과 교류*

이호윤**
hopiti777@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류큐 진공사와 조선 연행사의 교류 |
| 2. 류큐사절·통신사의 일본 파견과 류큐 정보 | 3.1 류큐의 진공사 파견 |
| 2.1 류큐사절의 일본 파견-에도노보리(江戸上り) | 3.2 조선의 연행사 파견 |
| 2.2 조선의 통신사 파견과 류큐 정보 | 3.3 류큐진공사·조선연행사의 북경에서의 교류 |
| | 4. 마치며 |

主語: 조선통신사(Joseon Tongshinsa), 조선연행사(Joseon Yeonhaengsa), 류큐진공사(Ryukyu Sinkousi), 에도노보리(Edo Nobori), 동아시아교류사(East Asian Exchange History)

1. 들어가며

근세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에서 교류의 중심과 중요 교류 상대는 중화제국(이하 중국)인 명·청제국(明·淸帝國, 이하 명조·청조)이었다. 전근대의 중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은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교류는 이른바 조공책봉체제 위에서 구축되어 있었다. 조선왕조(이하 조선)는 1392년 건국한 후 1401년 태종이 명조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고 1년 3공의 특권적 지위를 획득했으며 명·청 교체 후 청조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조선은 일본의 토쿠가와막부(徳川幕府)에도 사절단인 통신사(通信使)를 12회 파견하였다. 즉 조선은 근세 중국과 일본)에 대규모 사행단을 파견하여 중국과 일본을 잇는 동아시아 교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本論文は、公益財団法人住友財団「アジア諸国における日本関連研究助成」の支援による研究成果の一部である。

** 서울기독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1) 본 논문에서는 류큐왕국과 중·근세의 일본을 구분하기 위하여 류큐왕국(琉球王国)은 ‘류큐’, 무로마치·토쿠가와 일본은 ‘일본’으로 표기하였다.

동아시아 교류의 또 하나의 축은 류큐(琉球)였다. 류큐는 명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중계무역의 통한 명의 이익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명조로부터 책봉을 받아 2년 1공을 허락받았다. 명조는 류큐에게 조공횟수와 조공선 기항지 및 조공주체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특혜를 주었고 이를 통해 류큐는 동아시아 중계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류큐는 명·청교체 후 청조에도 2년 1공으로 진공사(進貢使)를 파견했으며 1609년 사츠마(薩摩)의 류큐침공 이후에는 토쿠가와 막부가 있는 에도에도 18회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렇듯 류큐도 중국과 일본에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류큐와 조선은 중국과 일본뿐 만 아니라 조선전기에는 류큐와 조선이 서로 사절을 파견하여 교류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양국의 사절단이 북경을 무대로 활발한 외교 활동과 교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류큐와 조선의 교류사 연구는 하우봉, 손승철, 이훈, 민덕기, 정성일 등과 같은 한일관계사 연구의 선구자들의 개별 연구와 이들의 공동연구의 성과물인 『조선과 유구』²⁾ 출판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규명되었다. 『조선과 유구』는 「유구의 역사」, 「조·유교린체제의 구조와 특징」, 「에도시대 유구사절과 조선사절」, 「조선과 유구의 교역」, 「인적 교류를 통해 본 조선 유구 관계」, 「문물 교류와 상호인식」이라는 개별 연구 주제를 한일 양국의 선행연구 참조·인용, 한일 양국의 사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하여 정치사, 외교사, 경제사, 문화 교류사, 사상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성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서는 조선과 류큐의 교류사 연구를 집대성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류큐와 조선의 교류사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역사학계에서는 연구자 수나 연구업적의 분량으로 보면 여전히 소수에 속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류큐와 조선의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사절단의 파견과 이들을 통한 교류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류큐와 조선의 사절단의 파견과 교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선행연구와 통신사 및 연행사의 사행기 등의 사료를 통해 그 일단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1999)『조선과 유구』도서출판 아르게

2. 류큐사절·통신사의 일본파견과 류큐 정보

2.1 류큐사절의 일본파견-에도노보리(江戸上り)

류큐와 일본의 외교적 교류는 무로마치시대에 시작되었으며 류큐사절이 무로마치막부에 내조(來朝)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류큐는 15세기 전반 일본에 사절선을 매년 파견하였는데 카라모노(唐物)라고 불리는 중국, 동남아시아 산품(견직물, 후추, 향목 등)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명조로부터 지급받은 대량의 동전도 류큐를 경유하여 일본에 유입되었다. 이 때 류큐에 도래한 일본의 선승(禪僧)들이 류큐사절로서 무로마치 막부를 비롯한 대일교섭에 파견되었으며 류큐왕부는 이러한 선종(禪宗)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일외교를 전개하였고 15세기 이후 하카타(博多)상인·사카이(堺)상인, 스오우(周防)의 오오우치씨(大内氏), 사츠마의 시마즈씨(島津氏) 등 다양한 해상세력이 나하(那覇)에 도항하여 거류지를 형성하고 상인, 선승, 의사, 기술자, 문화인, 여성 등이 장기체재 하면서 나하의 관리로 등용되어 항해기술, 교역능력, 어학능력 등을 활용하여 외교, 교역, 행정 운영을 담당하였다.³⁾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 사후 일본의 통치자로 등장한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는 류큐를 통하여 입진왜란 이후 단절된 명조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1602년 류큐선이 오슈다테령(奥州伊達領)에 표착하자 사츠마의 시마즈씨에게 이들을 송환할 것을 명했다. 1603년 봄 사츠마는 류큐인을 송환하며 류큐왕 상녕(尚寧, 1564-1620)에게 사례사(謝禮使)를 즉시 토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보낼 것을 요구했다. 사츠마는 1604년과 1605년 계속해서 사례사 파견을 요구했지만 류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608년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류큐침공 준비와 류큐에 대한 최종교섭을 사츠마에게 명했지만 결국 최종교섭은 결렬되었다. 1609년 3월 사츠마는 약 3천의 군사로 류큐를 침공하여 류큐왕 상녕 이하 1백여명을 포로로 삼았고 1610년 9월 이들 포로를 에도(江戸)로 연행하였다. 이후 사츠마는 류큐자이방부교(琉球在番奉行)를 통해 류큐를 통제하였고⁴⁾ 이후 류큐는 시마즈씨의 영지(領分)이지만 이국(異國)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⁵⁾

사츠마의 통제를 받게 된 류큐는 1634년부터 1850년까지 막부쇼군이 새로 취임할 때에 이를 축하하는 경하사(慶賀使)와 류큐국왕 즉위 시 즉위 허가를 감사하는 사은사(謝恩使) 등 류큐사절을 18회 파견하였는데 이를 에도노보리(江戸上り)라고 한다. 1634년 첫 번째로

3) 上里隆史(2010)「琉球の大交易時代」『日本の対外関係4倭寇と「日本国王」』吉川弘文館, pp.152-154

4) 紙屋敦之(1997)『大君外交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pp.94-96

5) 紙屋敦之(2003)『琉球と日本・中国』山川出版社, p.16

과견된 류큐사절은 에도가 아닌 교토에서 막부쇼군을 알현하였으며 2회체인 1644년부터 에도에 사절단이 과견되어 에도노보리가 시작되었다. 사절단의 구성은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등이 있었으며 정사는 ‘왕자(王子)’ 칭호를 사용했다. ‘왕자’는 ‘佐敷王子朝益’ 같이 성과 이름 사이에 넣어 칭한 것으로 왕의 직계가 아니라 왕의 숙부 등 왕실과 혈연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여하기도 했다. 정사와 부사는 일본어도 가능했지만 시마즈씨가 사절에게 청조풍의 의복을 착용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일본어 사용은 금지되었고 통역을 대동해야 했다.⁶⁾

사츠마에는 류큐사절이 사츠마에서 에도노보리를 준비하기 위한 시설인 류큐카리아(琉球仮屋)가 약 330평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1697년 카고시마 조카(城下) 대화재로 소실된 후 현 카고시마시립 나가타(長田)중학교 자리로 이전하였다. 류큐카리아는 1784년 류큐관(琉球館)으로 개칭하였는데 막말기까지 대지 면적이 3,599평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본전(本殿), 왕부 관원의 관청 및 사츠마상인과의 교역소, 사츠마 관원 접대소 등이 존재하였고 류큐인의 숙소, 해상교통안전을 기원하는 장소인 수운암(水雲庵) 등의 시설이 정비되어 있었다.⁷⁾

류큐사절이 막부에 과견되기 위해 출항하는 시기는 중국에 과견한 류큐 진공선(進貢船)이 귀국하는 직후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류큐진공사가 조공무역을 통해 받아온 회시품과 무역품 일부를 막부에 헌상품으로 지참하기 위해서였다. 류큐를 출항한 사절이 사츠마에 도착하는 것은 계절풍을 이용할 수 있는 6월, 7월이었으며 류큐사절이 사츠마에 도착하면 류큐관에서 에도행을 준비하기 위해 2, 3개월 체류하며 막부에 대한 헌상물을 마련하고 시마즈씨에 대한 조근이나 사원·신사참배 등 공적 행사에 참여했다.⁸⁾

류큐사절은 사츠마에서 시마즈씨의 참근(參勤) 행렬과 동반하는 형태로 에도로 향하였다. 시마즈씨의 참근 시기는 기본적으로 4월-6월로 정해져 있었지만 류큐사절을 동반할 때에는 막부의 허용 하에 수개월 연기되었다. 시마즈씨가 류큐사절을 동반하여 에도 참근을 하면 막부는 그 대가로 다음해 참근을 면제해 주었으며 류큐사절의 에도왕복에는 약 1년이 소요되었다.⁹⁾ 사츠마번은 류큐사절이 에도로 갈 때의 복장을 청조풍의 의복을 착용할 것을 명령했으며 병례시 중국음악을 연주하도록 했다. 이는 청조의 책봉국인 류큐를 번국으로 거느린 막부와 쇼군의 무위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였다.¹⁰⁾

에도에 도착한 류큐사절은 에도성에 들어가 2-3개월 체류하면서 막부 쇼군을 알현하였고,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사지내는 토쇼구(東照宮) 참배, 막부 로쥬(老中)와 와카도시요리(若年

6) 喜舎場一隆(1993)『近世薩琉關係史の研究』国書刊行会, pp.87-88

7) 紙屋敦之(2003), pp.34-37

8) 宮城宮昌(1982)『琉球使者の江戸上り』第一書房, pp.32-33

9) 宮城宮昌(1982), pp.139-140

10) 紙屋敦之(1997), pp.140-141

畜)에 대한 문안인사, 토쿠가와 고산케(徳川御三家)인 오와리(尾張), 키슈(紀州), 미토(水戸) 번주(藩主)에 대한 문안인사를 하였다. 또한 시마즈씨에 대한 조근, 사원 및 신사 참배 등의 공적행사에도 참여하며 토쿠가와막부의 지배층 및 지식인들과 교류하였다.¹¹⁾

2.2 조선의 통신사 파견과 류큐 정보

통신사는 조선전기에도 일본에 파견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선후기 조선이 토쿠가와막부에 파견한 사절을 가리킨다. 조선전기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중 류큐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은 1443년 서장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이다. 신숙주는 일본사행을 마친 후 1471년 일본에 관해 기록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류큐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류큐사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는 일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류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기록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토쿠가와막부가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은 국가는 조선이 유일하였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단절된 명조와의 국교회복에 힘을 썼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조선만이 토쿠가와막부의 유일한 수교국이 되었다. 토쿠가와막부는 유일한 수교국인 조선의 외교 사절단인 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면 회당 금화 약 100만 냥의 경비를 들여 이들을 맞이하였는데 이 금액은 토쿠가와막부의 1년 예산인 금화 약 78만 냥을 훨씬 넘는 규모였다. 조선 후기 총 12회 파견되었던 통신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한 회당 400~500명이었으며 한성에서 에도에 도착하는 여정 약 2,000km를 10개월에 걸쳐 왕복하였다. 통신사일행은 일본열도를 관통하는 약 10개월에 걸친 여정 중 각 지역의 일본인들과 수많은 교류를 하였으며¹²⁾ 이러한 교류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조선서적의 일본 유입과 일본주자학의 탄생’,¹³⁾ ‘조선을 통한 삼변의 난 등 중국정보 일본유입’,¹⁴⁾ ‘토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의 개혁정책 및 출판 장려 정보의 조선유입과 일본관의 변화’,¹⁵⁾ ‘일본서적의 조선유입과 일본사상의 조선실학에의 영향’¹⁶⁾ 등 서로 막대한 지적·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11) 宮城宮昌(1982), pp.77-81

12) 日韓共通歴史教材製作チーム編(2005)『朝鮮通信使 - 豊臣秀吉の朝鮮侵略から友好へ』明石書店, pp.58-99

13) 이호윤(2014)「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일본근대학연구』46, pp.287-305

이호윤(2017)「일본주자학과 큐코사」『일본근대학연구』56, pp.227-248

14) ロナルド・トビ(2008)『日本の歴史・九 「鎖国」という外交』小学館, p.144

15) 李豪潤(2018)「通信使記録の中の雨森芳洲の外交と思想」『日本研究』48, pp.207-208

16) 김상홍(2009)「다산의 일본 인식」『동양학』46, pp.64-84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는 일본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류큐에 대해서도 일본 지식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711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은 당시 막부의 실력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와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통신사 기행록 『동사일기(東槎日記)』에 수록된 「강관필담(江關筆談)」에 그 내용이 전한다. 「강관필담」은 1711년 11월 5일 통신 정사 조태억(趙泰億, 1675-1728), 부사 임수간, 종사관 이방언(李邦彦, 1675-?)과 아라이 하쿠세키 사이에 행해졌던 필담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통신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조선사절에게 자신의 국제적 경험을 설명하던 중 이태리, 네델란드 등 유럽인들에 대한 정보와 류큐인과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에 임수간은 에도·복건·나가사키에서 류큐까지의 거리를 아라이 하쿠세키에게 물었고 아라이 하쿠세키는 에도에서 류큐까지가 일본의 이법(里法)으로 500리¹⁷⁾ 쯤 되는데 류큐는 남해에 속한 땅이며 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열국(熱國)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복건과 나가사키에서 류큐까지의 거리도 에도에서 류큐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다고 하였다.¹⁸⁾

종사관 이방언도 류큐의 갖, 의복제도, 문자에 대해 물었는데 아라이 하쿠세키는 류큐는 명조의 관복을 따르며 신분이 낮은 이들은 황색이나 흰색 천으로 머리를 묶었고 문자는 일본의 속자를 쓰며 와카(倭歌)를 잘하지만 시문은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¹⁹⁾

1719년 통신사 제술관으로 일본에 파견된 신유한(申維翰, 1681-1572)이 남긴 『해유록(海遊錄)』에도 일본 지식인을 통해 들은 류큐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신유한은 일본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와 동행하며 통신사행을 수행하며 류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아메노모리 호슈는 일본 최초의 주자학자라 불리는 후지와라 세이키(藤原惺窩, 1561-1619)의 학맥을 계승한 경학파(京學派) 학자인 키노시타 준안(木下順庵, 1621-1699)의 제자로 임수간과 대화를 했던 아라이 하쿠세키와는 동문이었다. 신유한은 류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지욱(2016) 「다산 저작용과 일본 고학과 비교연구-다산과 이토 진사이의 성론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8, pp.35-61

17) 일본의 1리는 약 4km이다.

18) 『東槎日記』坤「江關筆談」; 不佞自以爲人。何則。大西洋、歐邏巴地方。意多禮亞人、和蘭人、琉球人、唐山諸山諸港人。皆僕及見之矣。今則與公團會于一堂之中。豈不奇哉。...青坪曰。琉球去此當幾千里。福建距長崎亦幾何。白石曰。本邦里法。日本以十里爲一里。五百里。在南海中之地。當日赤道之下。故曰熱國。福州距長崎里數亦略同。이하 원전사료 및 사료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의 고전원문을 인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한 것이다.

19) 『東槎日記』坤「江關筆談」; 南崗曰。似聞琉球使臣。亦有來聘貴國之事云。其冠服儀度何如。白石曰。皆是大明冠服制。其中下賤。以黃白絹纏頭上。想是謝氏五雜俎所謂草圈乎。南崗曰。文字何如。白石曰。文字皆與本邦之俗同。只善倭歌而已。

류큐국(琉球國)은 대소(大小)의 두 종류가 있다. 모두 일본의 서남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 작은 것은 중산주(中山主)라 한다. 옛 부터 일본에 조공(朝貢)하였다. 들으니 그 의복과 언어가 왜인과 대략 같다. 그런데 다만 사신으로 온 관직이 있는 자는 오모(烏帽)를 착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모(紗帽)와 별 차이가 없다. 공복(公服)도 또한 단령(團領) 제도가 있다. 3년에 한 번씩 조공(朝貢)하러 와서 사츠마(薩摩州)로부터 상륙하여 에도에 이르러 예(禮)를 행하고 간다.²⁰⁾

신유한은 류큐의 지배자는 중산왕이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것과 류큐의 언어는 일본과 비슷하다는 것, 관복의 사모가 조선의 것과 비슷하며 3년에 한 번 씩 류큐사절이 사츠마에 상륙하여 에도로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유한은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류큐의 풍속과 인물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아메노모리 호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메노모리 호슈가 말하였다. 옛날 대명 고황제가 중국의 24성(姓)을 보내어 (류큐에) 살게 하였다. 그 자손이 지금 10여 성이 있다. 그리고 대대로 문학을 하여 관인(官人)이 되었다. 관인의 복색은 또한 중화의 풍속을 보존하였다. 그리고 평민은 일본과 다르지 않다. 다만 긴 옷만 입고 바지는 없다. 풍속이 기교(技巧)를 숭상한다. 모든 공인(工人)들이 모두 한 구역에 모였지만 함께 혼거하지는 않는다. 그 만든 물건은 반드시 정묘(精妙)하다. 지금 일본에서 쓰는 대모빗(玳瑁梳) 및 겹돗자리(重茅席)가 류큐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²¹⁾

대명 고황제 즉 명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이 류큐에 살게 한 중국의 24성이란 14세기 명조가 류큐를 국제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하여 류큐에 파견한 화인(華人) 전문가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원의 지배자가 된 명조는 동아시아 해상 교역권 정비를 위하여 1372년 류큐에 입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입공할 선박과 조공에 대한 외교적 지식이 없었던 류큐에게 명조는 자신들의 사행단이 류큐로 왕복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입공하게 하였다. 그 후 류큐를 입공시키기 위해 1385년 류큐에 대형선박을 하사하였는데 명조의 류큐에 대한 대형선 하사는 영락연간(1403-1424)까지 연 30척에 이르렀다.

또한 명조는 항해전문가, 외교문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외교전문가, 통역전문가, 함선수리 전문가까지 류큐에 제공하였다. 류큐는 이러한 명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15-16세기

20) 『海遊錄』下「附聞見雜錄」;琉球國有大小二種。皆在日本西南海中。其小者曰中山主。自古朝貢於日本。聞其服色言語。與倭略同。而但使臣有職者。所着烏帽。如我國紗帽而差少。公服亦有團領之制。三年一朝貢。自薩摩州登陸至江戶。行禮而去。

21) 『海遊錄』下「附聞見雜錄」;東曰。昔大明高皇帝。勅遣中國二十四姓居之。其人子孫。今有十餘姓。而世修文學爲官人。官人服色。尚保中華餘俗。而平民則與日本無異。但着長衣而無袴。俗尚技巧。百工皆聚一區。不相混居。其所工作。必皆精妙。今日本所用玳瑁梳及重茅席。多出琉球云云。

동아시아의 교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들 화인 전문가들은 류큐 나하의 중심지에 위치한 토성으로 된 거류지인 쿠메무라(久米村)에 정착하여 살면서 대대로 류큐의 대중국 외교와 교역, 항해 등을 담당하였으며 쿠메무라 주위에는 류큐인과 일본인이 잡거하였다.²²⁾

당시 조선의 통신사들은 류큐가 국제무대에서 은폐하고 있던 사츠마의 류큐침공과 이로 인한 류큐사절의 에도 파견 및 류큐의 외교·교역 담당 특수 신분인 쿠메무라 화인 전문가에 관한 사실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까지 일본의 지배층 및 지식인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류큐는 토쿠가와 막부에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었고 조선도 토쿠가와 막부에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있었다. 조선과 류큐의 사절단은 류일은폐정책으로 인해 비록 일본열도에서 직접 만나 교류할 기회는 없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일본체재 기간 동안 각각 교류한 일본의 지배층 및 지식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밀에 속하는 사항까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류큐 진공사와 조선 연행사의 교류

3.1 류큐의 진공사 파견

1403년 명조는 류큐를 동남아시아 해상교류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류큐 중산왕을 책봉하고 조선 다음의 조공 석차인 2년 1공의 혜택을 주었다. 이도 공식적으로는 2년 1공이었지만 명조는 다른 조공국과는 달리 류큐에게는 조공 횟수와 조공선의 기항지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중국연안 각지에 자유로이 왕래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류큐왕부 뿐 만 아니라 류큐왕족 등 유력세력에게도 조공을 허락하였으며 감합제도도 적용하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²³⁾

류큐는 명·청교체 후 청조에도 진공사를 파견했다. 청조의 3대 황제 순치제(順治帝, 1638-1661)는 1649년 9월 초유사(招諭使)를 류큐에 파견하여 류큐의 복속 맹세를 받아 1654년 류큐 책봉을 결정하고 명조 때와 같은 2년 1공의 입공을 허락하였다.²⁴⁾ 그 후 1678년 류큐가

22) 上里隆史(2010), pp.142-145

23) 上里隆史(2010), p.143

24) 이에 대해 1655년 사츠마가 막부에 대응책을 상의했는데 막부는 청조가 류큐에 변발과 청풍 의관을 강제할 시 이를 수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는 류큐를 둘러싸고 청조와의 충돌을 회피하고 일본과 류큐의 관계를 은폐하여 대청교역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류일은폐정책의 연원이 되었다.

별도의 선박을 파견할 수 있도록 청조가 허용하자 류큐는 조공선과 접공선(接貢船)을 매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접공선은 그 전년에 파견된 조공선을 맞이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파견된 배였지만 실제로는 조공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류큐는 접공선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1년 1공의 조공무역을 할 수 있었다.²⁵⁾ 류큐는 동남아시아와의 교역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였으므로 명조와 청조는 류큐에게 이러한 입공의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조공책봉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 최대 경제대국이었던 중국과 공식적인 국교를 맺게 되어 막대한 이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조공 횡수는 중국과 조공국의 외교적 친밀도를 상징하는 것 외에 조공국의 경제적 이익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류큐의 일공면제문제(一貢免除問題)이다.

일공면제문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1722년 청조 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 1654-1722)가 죽고 5대 황제 옹정제(雍正帝, 1678-1735)가 즉위하자 류큐왕 상경(尚敬, 1700-1751)은 1724년 경하사를 파견하여 옹정제의 즉위를 축하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옹정제는 친필로 쓴 현판을 류큐왕에게 하사하였다. 류큐왕은 황제의 친필 현판 하사에 대한 답례로 1725년 다시 황금으로 만든 암수 한 쌍의 학 장식품을 옹정제에게 헌상하였다. 류큐왕의 선물을 받은 옹정제는 이에 대한 답례로 다음해인 1726년의 1년 진공 면제의 은공을 베풀었다.

그런데 1725년은 진공을 하는 해가 아니라 접공선을 파견하는 해였다. 청조 황제는 자신의 즉위를 축하하는 선물을 보낸 책봉국에게 조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은덕을 베푸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하지만 류큐의 입장에서는 1726년 진공을 못 하게 되면 1727년 진공선을 맞이하는 명목으로 파견하는 접공선도 보낼 수 없게 되어 조공무역을 2년 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류큐왕은 진공 면제 취소를 청조에게 호소하였지만 청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류큐가 진공에 집착한 이유는 진공이 중단된 사이에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조공국의 석차를 빼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²⁶⁾ 조공 석차를 빼긴다는 것은 조공의 횡수가 줄어 청조와의 무역의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공면제문제는 조공 책봉관계가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정치외교시스템이자 국제무역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류큐 진공사는 정사, 부사 등 200명 규모로 나하를 출발하여 복주(福州) 정해(定海)에 도착하면 도항증명서인 집조(執照)를 청조 관리에게 보이고 류큐에서 온 진공선임을 확인시킨 후 류큐왕이 복건포정사사(福建布政使司)에게 보내는 외교문서인 자문(咨文)을 전달하고 북경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사절단이 상경하였다. 북경으로 가는 사절단은 정사, 부사 및 종자

25) 喜舎場一隆(1993), pp.572-579

26) 紙屋敦之(1997), p.144

20여명이었고 나머지 인원은 복주에 잔류하며 무역활동을 하였다. 복주에서 북경에 도착한 진공사는 북경성에 있는 외국 사신들의 숙소인 회동관(會同館)에 숙박하였으며 외교를 담당하는 예부이문(禮部衙門)을 방문하여 류큐왕이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인 표(表)와 방물 및 예부 앞으로 보내는 자문을 전달하고 자금성(紫禁城)에 등성하여 정전인 태화전(太和殿)에서 정사와 부사가 황제에게 배례하였다.²⁷⁾

북경에서의 의례를 마친 진공사는 류큐에 귀국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류큐국왕과 류큐자이방부교(琉球在番奉行)에게 제출한 후 사츠마로 파견되어 중국의 정세를 보고하였다. 이렇듯 류큐 진공사는 명·청조와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던 토크가와 막부에 중국에서 얻은 정보를 전달하는 실질적 대중사절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3.2 조선의 연행사 파견

조선은 1401년 3대 국왕 태종이 책봉을 받아 명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 명조의 책봉국에 대한 입공정책은 명조와 접경한 왕조에는 3년 1공, 거리가 먼 국가에게는 10년 1공을 허락하였다. 조선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명조에 접경해 있어 3년 1공이었으나 조선의 요구로 1년 3공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선 초기부터 1년 3공의 정기사행 이외에 비정기사행도 수시로 보내었다.

명·청교체 후 조선에서 청조에 파견된 정기사행은 청조가 북경을 장악한 뒤에 정례화된 ‘삼절연공행(三節年貢行)’과 ‘황력뇌자행(皇曆齎咨行)’이다. 삼절연공행은 조선이 병자호란 직후 심양에 파견하던 동지(冬至), 성절(聖節), 정조(正朝) 등 삼절행과 연공행을 북경에 천도한 이듬해인 1645년부터 통합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서에는 동지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행이다. 동지행은 매년 음력 11월에 한성을 출발하여 이듬해 4월에 귀국하였다. 황력뇌자행은 약칭하여 ‘역행(曆行)’이라 하였고 매년 음력 8월에 한성을 출발하여 10월에 청의 수도 북경에 도착하여 청의 시헌력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대중국사절을 연경(燕京) 즉 북경으로 가는 사절단이라고 하여 연행사(燕行使)라고 불렀다.²⁸⁾

연행사의 규모는 정사·부사·서장관 등 3사신을 비롯한 220여명의 인원에 말 200여필이 동원되었으며 압록강을 건너 책문, 봉황성, 요동, 심양을 거쳐 북경까지 이동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사행은 주로 회동관(會同館)에 머물면서 ‘표·자문정납(表咨文呈納)’, ‘홍려시연의(鴻臚寺演儀)’, ‘조참(朝參)’, ‘방물세폐납정(方物歲幣納呈)’, ‘하마연(下馬宴)’, ‘영상(領賞)’, ‘상마

27) 紙屋敦之(2003), pp.67-70

28) 국사편찬위원회(1997)『한국사33 : 조선 후기의 경제』, p.438

연(上馬宴) 등의 제반절차를 끝내고 회동관 개시에서 무역을 한 뒤 ‘사조(辭朝)’하고 귀환하였다. 회동관에서 머물 수 있는 날짜는 명대에는 약 40일로 제한이 있었지만 청대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었다.²⁹⁾

3.3 류큐진공사·조선연행사의 북경에서의 교류

중국에 파견된 류큐진공사와 조선연행사는 북경에 체재하는 동안 외국사절, 중국관리, 표류민 등을 통하여 중국과 외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지봉집(芝峯集)』에는 이수광이 북경 방문 시 류큐사절은 물론 베트남사절, 태국사절 등과 교류를 한 기록이 보인다.

금황제(今皇帝) 26년(1598)에 이수광(芝峯子)은 북경(京師)에서 돌아오고, 나(이상의[李尙毅])는 북경으로 가는 중이라 의주(龍灣)에서 서로 만났다. 내가 안부 인사를 한 후 중국에서의 재미있는 이야기(奇談)을 묻자 이수광은 베트남(安南)사신 풍로(馮老)와 나는 약간의 시편(詩篇)을 꺼내 보여주었다... 신해년(1611) 동지에 나와 이수광은 모두 명(明)에 하절사(賀節使)로 갔는데, 해내외(海內外)의 모든 사신들이 북경에 모였다. 그때 류큐와 태국(暹羅) 사신도 한 객관에서 함께 유숙하였다.³⁰⁾

이수광은 1597년 자금성(紫禁城)의 황극전(皇極殿), 중극전(中極殿), 건극전(建極殿) 등의 소실(燒失)을 위문하는 진위사(陳慰使)로 북경에 갔을 때 회동관에서 50여 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유숙하였던 베트남(安南)사신 풍극관(馮克寬)과 시를 나누고 필담으로 문답을 하였으며 1611년에는 북경에서 류큐, 태국(暹羅) 사신 등 외교사절들과 회동관에서 교류를 하였고 『유구사신증답록(琉球使臣贈答錄)』 「사유구사신증시급도선(謝琉球使臣贈詩及刀扇)」에 류큐사절과 나눈 한시를 기록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기 중국과 일본은 물론 류큐 및 동남아시아국가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지만 조선 중기 이후 이러한 직접적 교류가 단절되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조선은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 이외에도 조공책봉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속에서 북경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을 통하여 류큐,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절과도

29) 국사편찬위원회(1997), p.440

30) 『芝峯集』卷八「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跋李尙毅 ; 今皇帝二十有六年。芝峯子回自京師。余方赴京。相遇於龍灣。絃喧涼畢。訪中國奇談。則出示安南使臣馮老唱和詩若干篇。...歲辛亥日南至。余與芝峯子俱賀節於天朝。薄海內外。咸集闕下。而琉球暹羅則同寓一館。

교류를 하며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수광의 『유구사신증답록』에는 류큐사절과의 문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류큐사절로부터 들은 류큐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류큐의 국토는 동서(東西)로는 1만 리, 남북(南北)으로는 7천 리임.
- 공자(孔子)의 도(道)를 존송하는데, 불자(佛子)도 절반 정도 섞여 있음.
- 3년마다 한 번씩 문과(文科)와 무과(武科)에서 각기 120명씩을 선발하며 경사가 있으면 별도의 과거를 시행함.
- 기후가 매우 따뜻하며 북산(北山) 한 도(都)가 가장 따뜻한데 벼가 일 년에 두 번 익음.
- 국왕의 성씨는 상(尚)씨임.
- 개국한지 250여 년이 지나 지금까지 24세(世)를 전하고 있음.
- 개국하기 전 오기(吾氣)라는 나라가 있었으며 1백 년 지속되었음.
- 오기국 이전에는 문자가 없어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알지 못 함.
- 일본과의 거리는 1만여 리쯤 되며 그 사이에 여러 섬이 있는데 류큐와 일본에 공물(貢物)을 바침.
- 태국(暹羅)과는 떨어져 서로 통하지 못하고, 거리도 얼마나 되는지 모름.
- 중국과 외교적으로 가장 가까우며 조선이 그 다음임.
- 과거에는 중산, 남산, 북산에 도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중산으로 통합됨.
- 대모(玳瑁), 유황(硫黃), 파초포(芭蕉布) 등의 특산물이 있음.
- 평상시에 망건과 관을 착용하지 않음³¹⁾

이수광은 류큐사절과의 문답을 통하여 류큐의 국토, 유교와 불교, 과거제도, 기후, 국왕의

31) 『芝峯集』卷九「琉球使臣贈答錄」後；問。貴國地方幾里。答曰。壤地褊小。不及朝鮮一布政所。東西僅萬里。南北七千里。續文獻通考曰。琉球最小。則地方萬里七千里之說。謬矣。問。貴國尚儒道乎。釋道乎。答曰。尊尚孔子之道。而釋子亦參半焉。問。科舉取人之規。答曰。三年一大比。取文武科各一百二十人。國有慶事則有別舉。俺等亦登第之人。問。風土寒暖。答曰。土氣甚暖。而北山一都爲最。稻一歲再熟。問。國王姓氏。答曰。姓尚 名寧。問。立國以來傳祚久近。答曰。經今二百五十餘年。傳二十四世。問。開國以前爲何國。答曰。國名吾氣。享國僅百年。問。吾氣之先爲何國。答曰。吾氣以前。未有文字。無書籍可記。問。距日本幾許。答曰。可萬餘里。其間有諸島。各自爲國。修貢于琉球日本。續文獻通考曰。自薩摩開船。可四日到琉球。則此說謊矣。問。貴國與暹羅相通乎。答曰。遠不能相通。道路不知幾何。問。貴國與何國相近。答曰。上國最近。貴國次之。曩者貴國送回敵邦漂海人口。其人尙在北山生住。以此知道里不遠。問。貴國有三國分立。號琉球云。信否。答曰。否。本國方都中山。而設都三處。曰中山。曰南山。曰北山。此必傳說之誤。問。貴地有鸚鵡乎。嘗聞祖宗朝。琉球遣使獻鸚鵡。故問之。答曰。否。如玳瑁。硫黃。芭蕉布。是土產也。其使臣又問譯官曰。貴國常着紗帽網巾乎。譯官答言紗帽着於公會。平居皆着冠。至於網巾。無貴賤常着。其使臣曰。本國則常時不着網巾與冠矣。

성씨, 역사, 일본과의 거리, 특산물, 의상 등 류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수광은 이러한 문답 속에서도 류큐사절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는 류큐가 가장 작다(琉球最小)고 하였다. 그러면 땅의 넓이가 1만 리, 7천 리가 된다는 (류큐사신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續文獻通考曰。琉球最小。則地方萬里七千里之說。謬矣)

《속문헌통고》에서는 사즈마(薩摩)에서 배를 타면 4일 만에 류큐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류큐사신의) 이 말은 황당한 것이다.(續文獻通考曰。自薩摩開船。可四日到琉球。則此說謊矣)

과거에 류큐에서 파견된 사신이 조종조(祖宗朝)에 앵무새를 헌상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귀국 땅에는 앵무새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 했다.(貴地有鸚鵡乎。嘗聞祖宗朝。琉球遣使獻鸚鵡。故問之。)

그는 위와 같이 문답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였고 자신의 지식과 다른 이야기를 들을 경우 이를 주석으로 기록하여 남겼다. 조선은 부산의 왜관과 통신사행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류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북경에서 류큐사행단을 통해 들은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연대재유록(燕臺再遊錄)』에는 류큐에 책봉사로 파견되었던 청조관리 목장(墨莊)과의 대화를 통한 일본과 류큐에 대한 지식 교류가 기록되어 있다. 청조관리 목장은 이정원(李鼎元, 1750-1805)이란 인물로 목장은 이정원의 호이다. 이정원은 1800년 5월 류큐 책봉 부사로 류큐에 파견되었고 류큐 사행 후 『사유구기(使琉球記)』와 『유구역(琉球譯)』을 남겼으며 문집 『사죽재집(師竹齋集)』14권에는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³²⁾

유득공과 교류한 1801년은 이정원이 류큐에 파견된 다음 해였으며 이를 통해 류큐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유득공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유득공은 이정원과의 문답에서 북경에서 류큐까지의 거리는 7,000리이고, 류큐국왕의 이름은 상온(尚溫)이며 책봉사가 류큐로 가던 중 해적을 만났는데 책봉선에는 200여명의 인력과 대포, 무기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과 류큐에서는 왕과 관리만이 짚신을 신고 평민들은 모두 맨발로 다닌다는 이야기 등을

32) 구지현(2016)「청나라 문사의 유구 경험과 조선으로의 유전- 이정원(李鼎元)과 유득공(柳得恭)을 중심으로」 『연민학지』20, pp.149-150

들었다.³³⁾

그런데 이러한 유득공과 이정원과의 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의 기록이다.

이정원이 말하였다. 국서(國書)는 각국이 다른데 류큐의 국서는 일본 글자이다. 내가 말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히라가나(以呂波)인데 중국의 20여 자로써 반자(半字)를 만들어 자모를 이루었다. 이정원이 말하였다. 지금 그 자모는 모두 47자인데 정자체(眞, 카타카나)도 있고 초서체(草, 히라가나)도 있다. 내가 말하였다. 일본은 또 카타카나(片假文)가 있지만 읽을 수 없다. (카타카나는) 한자(漢字) 옆에 썼는데 이것은 한문을 읽는 구독부호(句讀)로 사용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한문 작문을 할 줄 몰라 음주(飲酒) 같은 것을 주음(酒飲)이라 하고, 작시(作詩)를 시작(詩作)이라 하였는데 카타가나를 이용하여 구독부호를 정하여 가르친 후에 차츰 한문 작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³⁴⁾

이 기록은 이정원과 유득공이 류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정원이 류큐의 국서가 일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자 유득공이 통신사와 부산왜관 등을 통해 얻은 조선의 풍부한 일본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의 가나문자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이다.

내가 말하였다. 그들이 왜놈(倭子)에게 속하게 되어 만력(萬曆) 연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平秀吉)³⁵⁾가 그 국왕을 잡아 갔다. 이정원이 말하였다. 그들이 왜놈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큰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에 편입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³⁶⁾

-
- 33) 『燕臺再遊錄』; 問琉球水程幾何。答七千餘里。從五虎門至彼通計如此。前人有云萬里。又云四千餘里。似皆不確。問琉球國王姓尚。新受封王名云何。答尚溫。問渡海有何奇觀。答無甚奇觀。遇海賊擊逐之。問舟中人役幾何。有兵仗否。答人役二百餘人。大礮兵仗悉具。問到彼風俗衣章如何。答王及官着草鞞。平民皆赤足。衣章何論。
- 34) 『燕臺再遊錄』; 墨莊曰。國書。各國不同。琉球國書。日本字也。余曰。此日本以呂波也。以中國二十餘字。作半字爲字母。墨莊曰。今其字母共四十七字。有真有草。余曰。日本更有片假文。不可曉。書於漢字傍。此其句讀也。伊初不知作文。如飲酒曰酒飲。作詩曰詩作。用片假文定句讀。教人。然後。稍稍能文矣。
- 35) 사츠마가 류큐를 침공하여 중산왕을 비롯하여 100여명을 포로로 연행한 것은 1609년으로 이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치세기인데 여기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平秀吉)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보의 오류로 보인다. 이 사료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타이라노 히데요시(平秀吉)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성(姓)인 타이라(平)와 이름인 히데요시(秀吉)를 표기한 것으로 국서와 같은 외교문서에 기록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식 성명(姓名)이다. 마찬가지로 조선국왕에게 보낸 국서에 표기되어 있는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식 성명은 미나모토노 이에야스(源家康)이다.
- 36) 『燕臺再遊錄』; 余曰。伊屬倭子。萬曆中。平秀吉挈他國王去。墨莊曰。伊屬倭子。此事。其國人甚秘之。故不便入紀矣。

이 대회는 1609년 사츠마의 류큐침공과 류큐국왕을 비롯한 왕족 등 100여명이 에도에서 포로생활을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득공과 이정원은 류큐가 사츠마의 류큐침공으로 인해 일본의 가니문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츠마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사츠마의 침공 이후 청조의 책봉국이라는 류큐의 국제적 지위를 의식한 사츠마는 자신들의 류큐 통제 사실을 외부에 철저히 은폐하였다. 따라서 류큐도 사츠마와의 관계를 청조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류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가상 국가 ‘토키라’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토키라는 류큐와 사츠마 사이에 있던 칠도(七島) 중 하나인 토키라지마(宝島)를 가리키는 것으로 토키라지마는 사츠마의 류큐침공 후 사츠마 지배하에 들어갔다. 류큐는 책봉사로 류큐에 파견된 청조관인과 류큐에 체재하고 있던 사츠마인이 조우하게 될 경우 사츠마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츠마인을 가상 국가인 ‘토키라인’이라고 소개를 했다. 또한 류큐인과 사츠마인이 동승하고 있던 선박이 풍랑 등으로 청조에 표류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사츠마인을 ‘토키라인’이라고 소개하였다. 즉 청조의 조공국이면서도 사츠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류큐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³⁷⁾

류일은폐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유득공과 청조의 이정원은 류큐와 사츠마의 특수한 관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선과 청조는 류일은폐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며 조공책봉질서 하에서의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류큐가 청조에 대한 진공사 파견 등 책봉국으로서의 의무만 다 한다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김경선(金景善, 1788-1853)의 『연원직지(燕輶直指)』에는 북경에서의 조선사절과 류큐사절의 다양한 교류에 대한 기록이 있다. 김경선은 1832년 동지겸사은사 서장관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체재하면서 <표1>에 보이듯 류큐사절과 많은 행사에 함께 참여하며 교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김경선은 북경에서의 교류를 통해 류큐의 위치 및 거리, 청조와의 관계, 류큐진공사의 출발 및 귀국 일정, 상투, 망건, 조관, 의복, 신 등 문화, 관의제도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³⁸⁾

37) 紙屋敦之(2003), pp.81-85

38) 『燕輶直指』卷三「留館錄」上, 琉球館記; 國在東南海中。距北京水路萬餘里。旱路六千餘里。合一萬六千餘里。三年一朝。每自本國七八月發行。至福建下陸。翌年二月。自北京發還。七月始到其國云。其人不削髮。頂髻如我制。而但不着網巾。以蠟脂貼斂鬢髮。其朝冠則以黃帛爲之。制如我國耳掩而有稜。稜數不同。以別官階之高下。衣袴襪鞋。以紋繡爲之。皆倣滿制。而加以黃帛廣帶。其下隸則其冠制。如我國足道里樣。所着非錦而布。亦以別貴賤也。

<표1> 『연원직지』 기록 속 조선사절과 류큐사절의 교류

일 시	교 류 내 용
1832. 12. 26	홍려시연의 참석
12. 29	황제 태묘 행차 시 지송(祗送), 지영(祗迎)
12. 30	황제 주취 보화전(保和殿) 연종연(年終宴) 참석
1833. 01. 01	정월 초하루 조하(朝賀) 참석
01. 04	황제 주취 자광각(紫光閣) 연회 참석
01. 08	황제 천단(天壇) 행차 시 지송
01. 10	황제 서산(西山) 거동 시 지송
01. 15	원명원 정명광대전(圓明園正大光明殿) 연회 참석. 씨름, 곡예, 폭죽, 등불 관람
02. 01	예부(禮部) 주취 하마연 참석
02. 05	류큐사절과 작별인사

또한 류큐에 표착했다 류큐사절과 함께 북경으로 온 조선표류민을 통해서도 류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는 중국에 3년 1공을 한다. 중국은 류큐 사람들이 한어(漢語)를 해석하지 못하여 옛날에 몇 명을 류큐에 파견하여 한어를 가르쳤다.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 쿠메무라³⁹⁾에 거주하면서 역학(譯學)으로 업을 삼았다. 진공(進貢)을 하는 해마다 삼사(三使) 이외에 또한 쿠메무라 사람을 따로 보내었는데 대개 우리나라의 역관(譯官)과 같다.⁴⁰⁾

라고 기록하여 앞서 신유한과 아메노모리 호슈의 대화에서도 등장한 항해, 외교실무, 통역, 함선수리 화인 전문가의 정착지인 나하의 쿠메무라(久米村)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겼다. 이렇듯 조선은 북경에서 류큐사절과의 교류, 중국 관리와의 교류, 송환된 조선표류민 등을 통해 입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4. 나가며

근세 동아시아 국가 중 조선과 류큐는 중국과 일본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보낸 유이(唯二)한

39) 『연원직지』에는 구미촌(九尾村)으로 기록되어 있다.

40) 『燕轅直指』卷三「留館錄」上, 濟州漂人問答記; 其國三年一貢於中國。中國以琉球人不解漢語。昔送數人於琉球。以教漢語。其人世居九尾村。以譯學爲業。每當進貢之年。三使之外。又以九尾村人隨之。蓋如我國譯官也。

국가였다. 류큐는 명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명조로부터 특혜를 받아 조선 다음의 입지를 구축했으며 명·청교체 후 청조에도 매년 진공사를 파견하였다. 류큐는 1609년 사츠마의 류큐침공 이후 사츠마의 통제 속에 막부쇼군 습직 및 중산왕 즉위 시 에도에 경하사·사은사 등 18회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조선은 청조에 1645년-1876년 동안 612회(연평균 2.62회)의 연행사를 파견했고⁴¹⁾ 일본에도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12회의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에서 토쿠가와막부로 파견된 통신사행은 류일은폐정책으로 인해 류큐사절과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지만 류큐에 대한 지식은 조선사절이 일본에서 접촉하는 지배층 및 지식인을 통해 얻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 졌다. 1711년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던 임수간의 『동사록』에는 아라이 하쿠세키와 조선사절간의 필답집인 「강관필답」이 전하는데 류큐에 대한 문답 기록이 보이며 1719년 통신사 신유한은 아메노모리 호슈로부터 류큐에 대한 지식과 류큐관인의 한시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조선사절과 류큐사절이 비록 시차는 있지만 장기간 일본에 체재하며 일본의 지배층 및 지식인과 교류하여 서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북경에 파견된 조선사절은 류큐사절과 접촉하여 류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1611년 북경을 방문한 이수광은 외국 사신들의 숙소인 회동관에 머무르며 류큐사절, 베트남사절, 태국사절과 교류하였는데 지봉집에는 류큐의 국토, 유교와 불교, 과거제도 유무, 기후, 국왕의 성씨, 역사, 일본과의 거리, 특산물, 의상 등 류큐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기록하고 있다. 1801년 북경을 방문한 유득공은 류큐가 사츠마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과, 류큐가 일본문자를 쓴다는 것, 류큐국왕의 이름, 북경에서 류큐까지의 거리, 류큐사신의 이름과 복식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1832년 북경을 방문한 김경선은 류큐사절과 향연(饗宴), 연회(宴會)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한시창화, 조하배례연습 등을 함께 했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러한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선사절은 귀국 후 조선조정에 사행보고를 하여 중국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류큐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도 한성에 전달될 수 있었다.

류큐사절도 북경에서 조선 이외의 외국사신과의 접촉을 통해 외국에 대한 지식과 국제정세를 얻었다. 류큐사절은 태국(暹羅), 베트남(安南) 등 외국사신과도 교류를 하였는데 교류 횟수가 1780년-1854년의 60여 년 간 22회에 달하였다. 류큐사절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에 대한 지식과 국제정세를 사츠마에 전달하였으며 사츠마의 통제를 받고 있던 류큐는 이렇게 북경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츠마와 토쿠가와막부에 대한 류큐의 존재감을 과시하여 류큐왕부

41) 이철성(2005) 『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p.84-85

와 류큐의 제도를 보전할 수 있었다.⁴²⁾

근세 동아시아에는 류큐와 조선 사절의 사행 루트를 중심축으로 한 교류네트워크가 존재했고 이러한 조선과 류큐의 사절단 외에도 청조에서 조선으로 파견된 사절단⁴³⁾과 청조에서 류큐에 파견한 책봉사⁴⁴⁾ 및 부산 왜관의 쓰시마인, 류큐의 사츠마인 등도 교류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이들의 교류로 인한 지적 정보가 북경, 한성, 에도, 나하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될 수 있었다.⁴⁵⁾ ‘조선서적의 일본 유입과 일본주자학의 탄생’, ‘조선을 통한 삼번의 난 등 중국정보 일본유입’, ‘토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의 개혁정책 및 출판장려 정보의 조선유입과 일본관의 변화’, ‘일본서적의 조선유입과 일본사상의 조선실학에의 영향’, ‘연행사를 통한 한역서양과학서 및 고증학 등 중국 신사상의 조선 유입과 실학의 탄생’⁴⁶⁾ 등도 이러한 동아시아 지식 교류 루트를 통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사절과 류큐사절의 북경에서의 교류는 근세 한일교류사의 무대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대륙을 포함한 동아시아적 규모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류큐사절과 조선사절의 중국·일본 파견과 교류를 통한 한일 양국의 지적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東槎日記』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燕臺再遊錄』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燕輶直指』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芝峯集』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海遊錄』한국고전종합DB 고전원문

구지현(2016)「청나라 문사의 유구 경험과 조선으로의 유전- 이정원(李鼎元)과 유득공(柳得恭)을 중심으로」 『연민학지』20, pp.149-150

국사편찬위원회(1997)『한국사33 : 조선 후기의 경제』, p.438, p.440

김상홍(2009) 「다산의 일본 인식」 『동양학』46, pp.64-84

42) 紙屋敦之(2003), pp.73-76

43) 청에서 조선으로는 1637년-1720년 동안 연평균 1.6회, 1720년 이후에는 연평균 0.7회 사절이 파견되었다. 이철성(2005), p.85

44) 청조에서는 류큐로 1663년-1866년 동안 8회의 책봉사를 파견했다.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編(1985)『国史大辞典 6』吉川弘文館, p.314

45) 조선은 북경 한성 부산 쓰시마 에도라는 루트로 대중국사행과 대일본사행을 파견하였고 류큐는 북경 북진 나하 사쓰마 에도라는 루트로 대중국사행과 대일본사행을 파견하였다. 이로 인해 근세 동아시아에는 북경 한성 부산 쓰시마 에도 사쓰마 나하 북진 북경으로 연결되는 교류 루트를 통해 문화적 교류, 지식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46) 천관우(1953)「반계 유형원 연구(하)-실학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면단-」 『역사학보』3, pp.427-432

이철성(2005)「통신사와 연행사의 비교연구」『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경인문화사, pp.84-85
이호윤(2014)「근세 동아시아 사상공간과 후지와라 세이카」『일본근대학연구』46, pp.287-305
이호윤(2017)「일본주자학과 큐코사」『일본근대학연구』56, pp.227-248
정지옥(2016)「다산 저작용과 일본 고학과 비교연구-다산과 이토 진사이의 성론을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
88, pp.35-61
천관우(1953)「반계 유형원 연구(하)-실학발생에서 본 이조사회의 일단면-」『역사학보』3, pp.427-432
하우봉·손승철·이훈·민덕기·정성일(1999)『조선과 유구』도서출판 아르케, pp.1-381
李豪潤(2018)「通信使記録の中の雨森芳洲の外交と思想」『日本研究』48, pp.207-208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編(1985)『国史大辞典6』吉川弘文館, p.314
紙屋敦之(1997)『大君外交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pp.94-96, pp.140-141, p.144
_____(2003)『琉球と日本・中国』山川出版社, p.16, pp.34-37, pp.73-76, pp.67-70, pp.81-85
喜舎場一隆(1993)『近世薩琉関係史の研究』国書刊行会, pp.87-88, pp.572-579
上里隆史(2010)「琉球の大交易時代」『日本の対外関係 4 倭寇と「日本国王」』吉川弘文館, pp.142-145,
pp.152-154
日韓共通歴史教材製作チーム編(2005)『朝鮮通信使 - 豊臣秀吉の朝鮮侵略から友好へ』明石書店, pp.58-99
宮城富昌(1982)『琉球使者の江戸上り』第一書房, pp.32-33, pp.77-81, pp.139-140
ロナルド・トビ(2008)『日本の歴史・九「鎖国」という外交』小学館, p.144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要旨>

근세 류큐사절·조선사절의 일본·중국 파견과 교류
이호윤

조선과 류큐는 중국과 일본에 직접 사절단을 대규모로 파견하여 동아시아교류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일본에 파견된 조선사절은 일본 관료 및 지식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류큐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북경에 파견된 조선사절은 황제가 주최하는 조례, 향연 등에 참석하며 한시창화, 의례연습 등으로 류큐사절과 교류하며 류큐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류큐사절은 북경에서 조선을 비롯한 외국사신과 접촉하여 외국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사츠마에 전달하여 일본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조선사절과 류큐사절 파견으로 동아시아에는 교류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얻은 지적 정보가 북경, 한성, 에도, 나하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사절과 류큐사절의 북경에서의 교류는 근세 한일교류사의 무대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대륙을 포함한 동아시아적 규모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류큐사절과 조선사절의 중국·일본 파견과 교류를 통한 한일양국의 지적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he dispatch and exchange of Ryukyu and Joseon envoys to
Japan and China in the Early modern**
Lee, Ho-Yun

Joseon Dynasty and the Ryukyu dispatched large-scale missions directly to China and Japan,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East Asian Exchange Network. Joseon envoys dispatched to Japan indirectly obtained information about the Ryukyus through Japanese officials and intellectuals, while Joseon envoys to Beijing attended ordinances and feasts organized by the emperor and obtained information about the Ryukyus in interactions with the Ryukyu envoys through poetry creation and ritual practices. The Ryukyu envoys contacted Joseon and other foreign envoys in Beijing to collect foreign information, and delivered the collected information to Satsuma to show off their presence in Japan. With the dispatch of the Joseon and Ryukyu envoys, an exchange network and information network were formed in East Asia, and the information they obtained could be spread to East Asia through the bases of Beijing (北京), Hanseong (漢城), Edo (江戸), and Naha (那覇). In addition, the exchange between the Joseon and Ryukyu envoys in Beijing means that the stage of Korean-Japanese exchange history in modern times was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but was developed on an East Asian scale including mainland China. Through this, it is believed that a new perspective will be provided on the history of Korea-Japan exchanges and East Asian exchanges.